

사서(司書)의 단상

- 독서문화축제를 마치고 -



글 | 정 선 화
전라남도교육청 사서
jsun1009@korea.kr

누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을까? 사서(司書)로서 도서관인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! 당연한 일임에도 나의 그림자를 보는 일이 드물 듯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었다.

도서관에서 시작되는 독서교육! 어렵게 생각하는 독서교육을 좀 더 쉽게 학부모들에게 접근 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엄마의 “책 읽어라”는 잔소리에 지친 아이들에게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방법은 없을까?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곳 도서관으로 놀러 오도록 할 수 있을까?

매번, 학교나 도서관이나 비슷비슷한 독서프로그램들, 글 잘 쓰는 아이만 독서를 잘 하는 아이로 인식되어지는 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손 끌어 말해 주고 싶었다. 지난날 젓비린내 나는 내 아이에게 읽어 주었던 동화책을, 입가에 흘러내리는 젖을 굳이 닦을 생각 없이 마냥 흐뭇하기만 했던 기억들처럼 구태여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책 속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. 내가 가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곳, 내가 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,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을 단어조차도 완성하지 않고 초성으로만 대화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.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책을 놀이로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?

“뭐하러 또 일 저질러”, “그냥 편하게 지내지”, “괜한 일 시작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해?”라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는 속내들...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? 처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첩첩산중이었으며, 한 고개 넘고 나니 또 한 고비가 힘들게 했다. 그래도 시작해 보자! 시작조차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! 그래 하자! 몇 날의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실천방법까지 이러쿵 저러쿵,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숨 가쁜 날들을 보냈다.

드디어 축제일! “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”라는 주제의 한비야작가 강연은 한비야 씨를 만나러 멀리에서 온



▲ 걸개그림 그리기



▲ 독서 퍼즐 맞추기 대회



▲ Book 날개달기



▲ 책놀이

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 같았다. 가시는 한비야 작가를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자 에워싸던 우리 학생들의 모습! 옆사람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바로 조금 전 서로 장난치며 까불던 아이들이었나 싶었다. 그 외 모녀, 부자, 사제지간 등 2인 1조로 풀었던 ‘독서골든벨’,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리는 ‘걸개그림 그리기’ 등이 진행되었다.

어느덧 짧아진 가을해가 기울고 오랜만에 찾아 온 친구처럼 반가운 우리의 이웃인 시인들의 인연과 삶의 이야기인 ‘북 콘서트’는 전날 내린 비로 차가운 기운이 있는 바다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도 시인들과 관중들은 끝까지 함께 나누었다.

이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꼬맹이들의 ‘동화구연대회’를 시작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‘독서 퍼즐 맞추기 대회’, 마지막 프로그램인 ‘인형극 공연’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날들이었다.

또한 시대별 도서관과 기록매체의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‘도서관과 책의 역사’와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험 공간 ‘내 손안의 도서관’, 현장에서 느끼는 도서관 ‘우리가 만드는 미니도서관’,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행복한 독서와 나누는 즐거움 ‘우리 학교도서관’, 사서들이 추천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수준별 도서목록을 배포하여 도서관 이용 습관과 흥미를 유발시켜 도서관으로부터 시작하는 독서교육 ‘Library Start’, 여러 나라 문화의 자료를 전시하고 다양성을 체험하는 ‘작은 지구’, 각 가정에서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‘Book 날개달기’,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친필 원고를 전시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었던 ‘전남문학관’이 진행되었다.

그 밖에 책과 함께 놀아 보면서 책 속에서 느낀 감동을 소리로 표현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‘책놀이’, 책 주인공 모습에 내 모습을 더하여 그리는 ‘나도 주인공’, 각 지역에서 공모한 ‘책 읽는 나의 모습’ 등 다양

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평화광장은 우리들의 어울림으로 가득 채워졌다.

처음 개최한 축제이기에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더 알차게, 좀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,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로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같이 놀아준다면 구태여 책을 읽어라 잔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? 점점 더 말하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속 가득차 있는 열정들을, 꾸역 꾸역 올라오는 불만들을 표출하는 방법들을 정말 손 끌어 말해 주고 싶었다.

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놀이의 참맛을 알아준다면, 우리들 모두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. 청명하기만 한 가을 하늘이 점점 뿌옇게 흐려 보이는 이유를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잡은 손에서 느끼리라. 내일 또 다시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에 먹먹함을 느낄지라도 말이다.

그래! 나는 사서다! 우리는 사서다!